ELIO’S LITTLE DISCOVERIES

The Same Rain

같은 비 · 다음 계획에 담긴 변화



11세 · Day 042 · 함께 읽기 · 4장면



By afternoon the rain grew thin. A drop fell from the eaves, then another, and then the garden was quiet. Bori ran to the door and looked out at the wet grass.



The path was muddy, but the pond was full and bright. Mum walked to her beans and lifted one wet leaf. “Look,” she said. “They stood up again.” Bori looked at the shiny leaves.



“I still wanted the picnic,” said Bori. “I know,” said Mum. “And I still wanted the rain. We can both be right about the same sky.” Elio spread the blanket on the dry porch.



They ate their bread on the porch, listening to the last drips. The beans drank. The pond shone. Bori ate one slice and said, “Next time, I will bring an umbrella.”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비 내리는 창과 식탁을 함께 보고, 비 오는 날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을 하나씩 말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엄마의 말과 보리의 말을 번갈아 짚으며 읽어요. 두 사람이 같은 비를 보면서 무엇을 각각 생각했는지 찾아봐요.

생각 나누기

엄마는 왜 비가 반가웠나요? 보리는 왜 속상했나요? 둘 중 한 사람만 맞다고 정하지 않고, 각자의 이유를 원문에서 하나씩 찾아봐요.

생활에서

오늘 날씨를 함께 보고, 같은 날씨를 좋아할 사람과 싫어할 사람을 생각해 봐요. 아이의 느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들어 줘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